



냉전과 소련군기념비: 중국과 북한에서의 형성, 변화, 영향*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에는 다양한 유형의 소련군기념비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 기념비들의 대부분은 1945년부터 1957년까지 세워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시간과 기념의 시간의 질서를 검토하고, 이들의 의미의 변화를 밝히며, 나아가 소련군기념비가 중국과 북한의 기념문화에 미친 영향을 동아시아 냉전문화 연구의 맥락에서 질문하고 있다.

초기 소련군기념비는 '해방'과 '추모'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1950년대 중반에는 '전승'과 '우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건립된 것으로,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과 중국에 세워진 전쟁기념비들에 영향을 미쳤다. 냉전기에 발생한 소련과 중국의 갈등, 북한의 주체사상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군기념비들의 역사적 중요성을 약화시켰으나, 탈냉전과 함께 소련군기념비는 동유럽과는 달리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을 확인하는 역사적 기억의 터로 재활성화되고 있다.

주제어 소련군기념비, 해방, 추모, 우의탑, 냉전문화

I. 문제 제기: 기념비를 통한 냉전문화 연구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도시 단둥(丹東)에 있는 '항미원조기념비'는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현대사와 문화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기념비는 한국전쟁 정전 40주년이던 1993년 7월에 세워진 것으로, 단둥 시 배후에 있는 높은 산(영화산)에 세워졌는데, 높이 53m, 기단의 길이 10.25m다. 이 기념비의 높이는 한국전쟁의 정전이 이루어진 1953년을 기념하는 것이고, 기단의 길이는 중

* 이 글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4955). 이 글의 초고는 2015년 2월 14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냉전학회 창립준비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고, 일부 내용은 『내일을 여는 역사』 59(2015. 6)에 발표되었음. 중국문헌을 정리해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지은에게 감사를 표한다.

국 인민지원군이 공식적으로 참전한 날을 나타낸 것이다.¹ 이 기념비는 공간적 입지와 높이에서 뿔어내는 수직성(verticality)과 전망성이 특출하고, 기념해야 할 시간들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성이 인상적이다. 이 기념비 앞에 서면, 단둥 시내와 압록강, 그리고 강 대안의 신의주 시내가 차례로 내려다보인다.

이 기념비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와 대비되는 여러 기념비가 떠오르고 동아시아의 전쟁과 이에 후속하는 냉전의 지평을 성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냉전의 심상지리’에서 이 기념비의 맞은편에는 한국전쟁에서 중국 인민지원군과 맞섰던 유엔군 총지휘자 맥아더 장군을 기념하는 동상(1956)이 인천에 존재하고, 또 전쟁의 동맹자였던 북한이 세운 ‘우의탑’(1959)이 평양에 존재한다. 이 ‘우의탑’은 한편으로는 동일한 장소에 있는 해방탑(1946)을, 다른 한편으로는 다련(大連)의 뤼순(旅順) 구에 있는 또 다른 ‘우의탑’(1957)을 연상시킨다. 이 기념비들은 모두 동아시아의 냉전·분단체제(정근식, 2014)를 형성한 연속전쟁들에서 유래한 적대와 동맹의 상징들이다. 만약 우리가 냉전 기념비들의 지도를 작성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구성요소들이다.

나는 중국 동북지방의 거점도시들을 수차례에 걸쳐 답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국면인 소련군의 만주 및 북한으로의 진주와 점령이 낳은 기념비들의 정치문화적 의미를, 중국 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에의 참전과 북한주둔이 낳은 기념비와 연결시켜 검토해보는 것이 동아시아 냉전 연구의 유력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소련군기념비들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세워졌으며, 이후 중국과 북한에서 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기념비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시간과 기념의 사회적 시간, 그리고 이들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주체적 시간들은 어떻게 얽혀 있으며, 이들이 갖는 의미는 동아시아 냉전문화 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서, ‘원형으로서의 소련군기념비’라는 가설적 명제와 함께 이들의 역사철학적·미학적 연관성을 해명하는 작업은 동아시아 냉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20세기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창법적 폭력에 후속하면서 그것에 의해 그

¹ 이를 포함하여 항미원조기념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Jung(2015) 참조.

지형이 주도되었다. 기념비는 연합국을 ‘함께 그리고 동시에’ 기념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적 분단, 즉 소련군 점령지역과 미군 점령지역에서 각각 독자적인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냉전의 유산은 아직도 민족적 정체성이나 국제관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Lowe and Joel, 2013). 전쟁과 평화 사이에 존재하는 냉전이 전쟁과 그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매개하며,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그 매개의 방식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최근의 냉전 연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통일 후의 베를린에서도 과거의 냉전·분단시기의 기억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듯이(Verheyen, 2010), 탈냉전하의 동아시아에서도 일상적 냉전문화뿐만 아니라 심리전의 차원에서 전개된 ‘문화냉전’의 영향이 깊게 남아 있다(기시 도시히코·쓰치야 유카, 2012).

냉전·분단체제에서 기념비문화에 대한 연구는 정치군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공산진영’을 떠받친 소비에트적 근대성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냉전 연구가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자유진영’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식적으로 북방진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도 있다.

이 연구는 남한이나 일본, 대만 등 이른바 ‘자유진영’에 대응하는 지역, 그것을 어떻게 명명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공산진영’ 또는 웨스타드(Westad, 2007)의 표현대로 ‘정의진영’에서 소련군 기념비문화가 중국과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발견적 연구다. 여기에서는 소련군 기념비문화가 가진 모종의 근대성을 찾기 위하여 각종 기념비의 유형화와 계열화를 시도해볼 것이다.

II. 이론적·방법론적 맥락

1. 기념비의 시공간: 사건의 질서와 기념의 질서

기념비란 무엇인가?² 그것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나는 일단 그

² 오스트리아 미술사학자 리글(Riegl, 2013)은 1903년에 출판된 책에서, 기념물(Denkmal)을 의도

것을 역사적 사건을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하기 위한 문화정치적 장치로 본다. 역사적 사건은 외부나 아래로부터의 에너지의 지속적 생산과 이동이 일상적 문턱을 넘어 대규모로 짧은 시간에 분출되는 것이며, 이에 참여했거나 동원된 사람들에게 의해 오래 기억되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에 대한 기념은 이런 물리적·정치적 이동이 단절되고 새로운 사물의 질서가 형성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념은 시공간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영속화하려는 욕망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의례를 행한다. 그런 점에서 기념비는 특정한 에너지 이동의 응결이다. 기념은 祈念, 記念, 紀念이라는 서로 다른 한자표기에서 드러나듯이, 추도와 기록성, 시간적 계기성을 내포한다. 이를 물적으로 표현한 기념비는 사상성과 실천성을 가지며, 제의, 추도, 숭배를 표현한다. 기념비는 그것이 지시하는 특정 사건과 이에 대한 기억을 내포한다. 기념비는 그것이 표상하는 사건의 시간적 질서를 넘어서서 기억의 소환 순서에 따라 세워지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독자적인 기념적 시간의 질서 속에 배치된다. 기념비의 세계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질서와 기념의 질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념비에 대한 연구는 항상 무엇이 기념의 대상이 되는가와 함께 기념의 주체와 기념의 방식에 관한 질문을 동반하게 된다. 사건의 시간적 질서와 기념의 시간적 질서를 대비하고, 후자의 상대적 자율성을 포착하는 것은 기념비 연구의 중요한 과제다.

기념의 물질적 표현으로서의 기념비와 기념탑은 구분이 쉽지 않지만, 대체로 동아시아문화에서 전자는 유교적 요소를, 후자는 불교적 요소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크게, 좌(座), 신(身), 수(首) 또는 관(冠)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념비의 형태는 단순화하면, 방형(方形), 거형, 연화형, 거북형으로 구분되며, 기념탑은 다릉(多陵)형, 방주형, 팔각형, 원주형, 복발(覆鉢)형, 누각형, 밀침(密檐)형, 보좌형으로 구분된다(田志和, 2009).

소련에서 기념비는 레닌시대의 구시대에 대한 부정과 파괴, 스탈린시대의 건설프로젝트를 드러내는 상징적 매체였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구현하는 유력

적 기념물과 비의도적 기념물로 나누고, 기념물의 기억의 가치(Erinnerungswert)를, 의식적 기억의 가치, 역사적 가치, 오래됨의 가치(Alterswert)로 범주화했다.

한 공간이었다(이지연, 2008). 그런 점에서 소련군기념비는 “폐허 위에서 새롭게 존재를 드러낸 권력의 상징적 몸”(이지연, 2008)이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전쟁기념비에 어떻게 각인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련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1939년, 독일과 함께 발트 지역과 폴란드를 분할하는데 참여했으나, 1941년 독일군이 소련을 공격하자 연합군의 일원으로, 이른바 조국방위전쟁을 치르고, 1945년 5월 동유럽과 독일 동부를 점령한 전승군이었다. 또한 소련군은 1945년 8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동북아시아 전쟁을 수행하였는데, 이 전쟁은 명백히 ‘조국방위’를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논리가 필요했다. 소련군은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추모하면서 이 전투를 ‘해방’의 논리로 포장하고, 이를 기념하는 비를 전쟁 종료 직후에 세우기 시작했다.

소련군기념비는 소련 국내뿐 아니라 그들이 점령했던 동유럽과 동북아시아의 주요 전장과 도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유럽과 동아시아 냉전의 양상이 달랐듯이, 소련군기념비의 역할이나 기능이 두 지역에서 약간 달랐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 소련군기념비는 이질적이며 근대적인 것이었다.³ 이 기념비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의 작전범위와 활동을 반영하며, 이동과 전투, 점령, 점령 이후의 통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다. 이 전쟁 기념비는 현지 권력이나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지속성이 결정되었으며, 전후 냉전은 이 기념비들을 유지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이 기념비들은 각 도시에서 하나의 점으로써 존재하기도 하고, 핵심적 상징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중국 동북부의 하얼빈, 창춘(長春), 선양(瀋陽), 다롄 등 4대 도시와 주변 소도시들에는 소련군의 주요 전투 경로를 따라 소련군 묘지와 기념비가 조성되었다.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에 대한 시공간적 분석은 매우 흥미로운 과제다.

중국에서 근대적 기념비는 주로 항일전쟁이나 ‘해방전쟁’과 관련하여 세워졌

³ 소련군기념비문화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클라크와 도브렌코(Clark and Dobrenko, 2007)는 1917년부터 1932년까지를 문화의 불세비증화기, 1932년부터 1941년까지를 하이(high) 스탈린주의기, 그리고 1941년부터 1953년까지를 후기 스탈린주의기로 구분하였다.

는데, 이 기념비문화에서 소련군기념비가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소련군기념비는 유럽에서는 1945년 8월부터,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10월부터 세워졌다. 중국 자신의 혁명 및 항일전쟁기념비들은 이보다 약간 늦은 1946년 7~8월부터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그 명칭은 군대의 명칭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⁴

냉전체제에서 동유럽의 소련군기념비가 사회주의적 동맹을 유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중소분쟁이나 북한의 주체노선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냉전은 두 지역의 소련군기념비의 운명을 바꾸어놓았다. 탈냉전이 뚜렷한 동유럽에서 소련군기념비들이 조롱이나 철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동북아시아에서는 오랫동안 동면에서 벗어나 오히려 재건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⁵

2. 자료

기념비 연구는 우선 개별 기념비에 대한 개별주의적 접근과 다수의 기념비에 대한 유형화와 계열화를 중심으로 하는 집합주의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소련군의 승리를 기념하고 전쟁에서 사망한 병사들을 기리는 기념비는 공간적으로 보면 소련군의 작전지역이었던 소련 및 독일을 포함한 동유럽,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걸쳐 있다.

동북아시아의 소련군기념비는 대체로 1945년 8월의 ‘폭풍작전’에 관련된 것

⁴ 1945년 8월 13일 동북인민자치군(40여 개 도시), 9월 3일 동북인민자위군(57개 도시), 1946년 1월 동북민주연군, 1948년 1월 동북야전군으로 변화했다.

⁵ 소련군기념비에 상응하는 자유진영의 상징적 기념비들은 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의 장병들을 추모하는 기념비들이다. 동아시아 냉전문화를 기념비와 관련시켜 연구할 때 초점이 되는 대상의 하나가 맥아더 장군 동상이다. 인천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성금을 모아 1956년에 세운 것이다. 이듬해에 이 기념물이 세워진 공원은 냉전시대를 상징하는 ‘자유’공원으로 명명되었다. 이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1998년부터 이 동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2005년에는 철거/보존 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이 논란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다. 도문(圖們, 보병과 기병 기념비), 선양(瀋陽, 탱크병 기념비), 하얼빈, 다롄, 창춘(長春, 항공병 기념비), 진저우(錦州), 만저우리(滿洲里), 치치하얼(齊齊哈爾) 등 8개 도시의 기념비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인민넷 2010/04/06), 이를 포함하여 중국에 소재하는 기념비에 관한 티안지허(田志和) 교수의 책이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그는 『능비의 울림(陵碑的震撼)』(2009)에서 중국의 각종 묘지와 기념비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른바 혁명열사능원 18좌(座), 혁명열사기념비탑 117통(通)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이 책에 이어 중국 영토 내에 있는 소련군 관련 묘지나 기념비탑을 조사하여 『영원한 회념: 중국소재 소련홍군 기념물(永恆的悔念: 中國土地上的蘇聯紅軍碑塔陵園)』(2010)을 출판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영토 내에 있는 소련군 관련 묘지와 기념비나 탑이 9개 성, 68개 성진에 약 100여 개가 흩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련군 관련 건축물은 4개 성, 1자치구의 64개 성진에 산재해 있는데, 이는 크게 1932년부터 1939년까지 중국의 항일전에 참가했다가 희생된 소련공군을 기념하는 건축물, 1945년 8월부터 1946년 3월까지 이루어진 항일전쟁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 그리고 중국 정부가 소련군의 귀국에 즈음하여 만든 기념비가 있다. 이것은 건립 주체로 보면, 소련군과 중국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중국의 각종 기념비와 소련군기념비에 관한 기초자료들이 티안지허 교수에 의해 정리된 반면, 북한에 있는 소련군이나 중국군 관련 기념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필자가 아는 한 아직 없다. 평양에 있는 핵심적 상징공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이노(Joinau, 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들의 기념비에 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1989년 북한에서 출간된 오대형·하경호(1989)의 책에는 15개의 ‘대기념비’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종친선기념비 우의탑’과 ‘조국광복의 환호성을 뜻깊게 형상한 해방탑’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있는 기념비들은 현지조사가 가능하나, 북한에 있는 기념비들은 접근이 어려우므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진과 이에 관한 정보들을 짜맞추어 전체적인 윤곽과 이들의 변화를 포착해야 한다. 최근에는 여행객들이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진이 많으므로, 이들을 자료검증을 거쳐 활용할 수 있다. 1950년대 북한사회에 관한 스프링거(Springer)의 사진집(2009)에

기념비들이 포함되어 있고, 유럽의 여행객 케른바이저(Kernbeisser)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⁶에 올린 근래의 북한 경관 사진들은 기념비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된다.

III. 소련군기념비의 형성과 분화

1. 소련군의 만주 점령과 '해방' 기념비

1939년 9월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전선과 아시아 태평양전선으로 구분된다. 소련은 전쟁 초기에는 독일과 함께 폴란드나 발트해 연안 국가들의 영토를 재분할하는 데 참여했다가 1941년 독일과의 전투를 시작으로 '대조국전쟁' 또는 '조국방위전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소련에게 제2차 세계대전과 조국전쟁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1941년 말,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일전 참전을 종용받았다. 소련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으면서 유럽전선 승리 3개월 이내에 대일전쟁에 참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유럽전투는 1945년 5월 8일, 독일의 베를린에서의 항복조인식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5월 8일, 러시아는 5월 9일을 승전기념일로 삼았다. 소련군은 1945년 6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승전기념 열병식을 가졌고, 8월 19일 비엔나에 홍군 영웅기념비를 세웠다. 11월에는 베를린 티어가르텐에 병사추모비를 세웠다.

유럽에서의 전투가 종료된 후 소련군은 일본 관동군이 수비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부와 바이칼 동부로 이동했다. 소련은 1945년 7월, 대일 작전을 위하여 자바이칼 방면군, 원동 제1방면군, 원동 제2방면군, 아무르함대, 태평양함대 등으로 구성된 소련 원동군을 구성하고 바실리에프스키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총사령부는 시베리아 치타에 주둔하고 있다가 작전 개시 전날에 하바로프스크로 이동하였다. 원동전투에 투입된 총병력은 164만여 명이었고, 이들이 가진 대포는 3만 문에 달했으며, 탱크와 자동화포가 5,250문, 비행기 5,407기로,

⁶ <http://www.flickr.com/photos/kernbeisser>(검색일: 2015. 3. 16).

일본 관동군의 무기에 비해 월등했다. 소련군은 러시아혁명으로 성취한 소비에트적 근대화의 성과를 군사력 강화로 연결시켰으며, 비행기와 탱크는 중요한 군사적 무기였다.

중국 동북지역에 주둔하던 일본 관동군은 아마다 대장이 사령관으로 2개 방면군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당시 일본군은 태평양전선으로 상당수가 이동한 상태여서 병력은 100만 명에 달하지 않았다.

1945년 봄에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한 후, 7월 26일 포츠담회담에서 연합국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할 것을 권유하는 포고를 발표했는데, 일본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소련은 8월 8일, 1941년 4월 13일 맺은 일소중립조약을 파기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자바이칼방면군 사령부는 시베리아 치타에 주둔하고 있다가 외몽골을 거쳐 내몽골 칼루로 들어와 전후에 창춘에 주둔하였는데 이 부대에는 76명의 장군이 있었다. 원동 제1방면군은 메레츠코프 원수를 사령관으로 하여 우스리스크에 사령부를 두었고, 전투 개시 후 흑룡강성 남부의 가리쿠우로 이동하였다. 여기에는 62명의 장군이 있었다. 제2방면군은 푸르가예프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여 사령부는 하바로프스크에 두고 있다가 전투 개시 후 유태인자치주인 엘링스크예로 이동하여 주둔하였다. 여기에는 39명의 장군이 있었다. 태평양함대는 총병력 1.65만 명으로, 잠수함과 항공병을 활용하여 일본군과 본토의 연계를 끊고, 해상탈출을 막는 것을 임무로 하였는데, 주력함과 해상육전대는 한반도로 진격하여 북한을 점령하였다. 또한 아무르 강 함대는 1.25만 명의 병력으로 흑룡강지역의 부대를 지원하였다.

8월 9일 소련군은 서, 북, 동 세 방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였고, 일본군은 진지전을 통해 방어하려고 하였지만, 8월 15일 방어진지가 전면 붕괴되었다. 소련군 제39집단군은 쓰핑(四平), 궁주링(公主嶺), 창춘을 점령하였고, 제53집단군은 칼루를, 소몽연합군은 장자커우(張家口)를, 근위 탱크 제6집단군은 선양과 뤼다(旅大) 지구를 점령하였다. 8월 18일 만주국 황제 부의는 퇴위선언을 하였고, 19일에는 아마다 대장이 창춘에서 투항서에 서명하였다. 8월 26일 가장 치열했던 호투와 동녕 진지전이 종료되었고, 8월 30일에는 중국공산당의 팔로군이 산하이관을 점령했다.

북한으로 들어온 소련군은 8월 11일 웅기상륙작전에 이어 13일 나진을 점령

표 1 중국 주요 도시의 소련군 진주 및 철수 시기

도시	진주 시기(1945)	철수 시기(1946)
내몽골자치주 만저우리	8월 9일	5월
흑룡강성 하얼빈	8월 18일	4월 21일
흑룡강성 치치하얼	8월 19일	4월 22일
길림성 창춘	8월 19일	4월 14일
길림성 도문	8월 17일	4월
길림성 옌지	8월 19일	4월 24일
요령성 선양	8월 19일	3월 7일
요령성 안둥	8월 27일	3월
요령성 다렌	8월 22일	1955년 4월

출처: 田志和(2010: 272-276)에서 정리.

하고, 16일 청진을 점령했다. 20일 실질적인 전투가 종료되었고, 21일에는 원산과 함흥을 점령했다. 8월 25일 소련군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이 함흥에 도착했는데, 이날 사할린전투도 종료되었다. 이튿날 소련군 지휘부는 평양에도 도착했다. 9월 1일에는 지시마(千島)군도 전투가 종료되었다. 일본군은 9월 2일 미주리호 함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9월 3일이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기념일로 제정되었고, 중국은 이날을 중국 항일전쟁승리기념일로 정하였다.

소련군이 중국의 동북지역을 점령한 후, 약 180여 개의 도시에 주둔했고, 경무사령부를 설치하여 통치했다. 이 기간에 가장 큰 쟁점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였다. 소련군은 중국 동북지역을 점령할 때 중국 공산당이 동북인민자위군의 이름으로 57개 도시를 점령하는 것에 동의했고, 실제로 중국 공산당 영도하의 선견부대 1만 3,000명이 동북인민자위군의 이름으로 46개 도시를 점령하였다. 곧이어 소련군은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는 기념비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소련군은 1946년 1월 내몽골지역에서부터 철수를 시작하였는데,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대체로 1946년 4월에 철수하여 5월 3일 완료했다. 이 철수를 계기로 1946년 6월 26일, 중국 장제스(蔣介石) 정부는 30만 명을 동원하여 공산당 점령하의 중원해방구를 공격하여 중국 내전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소련군이 중국의 주요 도시에 진주한 시기와 철수한 시기는 표 1과 같다.

소련군의 중국 동북지역 및 북한의 점령은 당시에 ‘해방’으로 의미화되었고,

표 2 중국 주요 도시의 소련군 묘지(100명 이상)

도시	명칭	희생자 수	묘지 수	건립 시기
내몽골 호비패얼	소련홍군열사능원	1101	32	1945년 11월
내몽골 과우전기	색비 소련홍군진망열사묘	450	18	1945년 8월
요령성 다렌	소련홍군열사묘원	385	385	1953년
요령성 다렌 뤼순 구	소련홍군열사능원	1408	1268	1945년 9월
요령성 다렌 진저우	소련홍군열사묘원	1000	634	1953년
장쑤 성 난징	항일항공지원대열사묘	237		1932년
내몽골 오란호특	소련홍군열사묘	146	4	1947년 4월
요령성 선양	소련홍군열사능원	155	155	1945년 11월
흑룡강성 하얼빈	소련홍군열사묘원	111	111	1945년 11월
흑룡강성 치치하얼	소련홍군열사능원	126	16	1945년 11월

출처: 田志和(2010: 266-271)에서 정리.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들은 ‘열사’로 간주되어 현지에 묻혔다. 소련원동군은 중국전장에서 3만 2,000여 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8,000여 명이 전사했고 대부분 중국 영내에 묻혔다. 이 묘지는 열사능원으로 불려졌는데, 이들을 열사로 부르는 전통은 이미 1932년 난징(南京)에서 만들어진 듯하다.⁷ 소련군 묘지는 대체로 1945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조성되었고, 큰 규모의 묘지에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가장 큰 규모의 묘지가 다렌의 뤼순 구와 진저우에 있는 소련홍군열사능원이다.

티안지허에 따르면, 중국의 영내에 있는 소련군 관련 기념비와 묘지는 68개 도시에 흩어져 있다. 첫째 범주는 1932년부터 1939년 사이에 중국의 항일전쟁에 참가한 소련항공지원대의 희생 병사를 기념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소재하던 충칭(重慶), 계림, 난징, 우한(武漢)의 4개 도시에 있는 기념비다. 둘째는 1945년 8월부터 9월 이루어진 소련군의 일본군과의 전투를 기념하여 소련군이 1946년 3월까지 스스로 세운 기념비와 묘지들이다. 셋째는 소련군의 철수 당시나 그 후에 이를 기념하고 중국과 소련의 우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세운 기

⁷ 1932년 중국 국민당의 북벌전쟁에서 희생된 공군을 추모하는 항일항공열사기념비가 세워졌는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소련 정부가 소련지원항공대를 파견하여 항일전쟁을 도왔고, 이 과정에서 희생된 소련군 237명이 열사묘지에 함께 안장되었다. 흥미롭게도 이 묘지에는 중국인 870명 외에 미국인 2,197명, 한국인 2명이 안장되었다.

표 3 중국 주요 도시의 소련군기념비

도시	명칭	건립 주체	건립 시기
장쑤 성 난징	항일항공열사기념비	중국	1995년
요령성 선양	소련홍군장사진망기념비	소련군	1945년 11월
요령성 다렌 뤼순 구	소련홍군해방탑	소련군	1949년 9월
요령성 다렌 뤼순 구	소련홍군승리탑	중국	1955년 8월
요령성 다렌 뤼순 구	중소우의탑	중국	1957년 2월
길림성 창춘	소련항공열사기념탑	소련군	1945년 11월
길림성 도문	중소우의탑	소련군	1945년 8월
길림성 용정	동북해방기념비	소련군	1946년 3월
흑룡강성 하얼빈	소련항공열사기념탑	소련군	1945년 11월

출처: 田志和(2010: 266-271)에서 정리.

기념비들이다. 이런 기념비와 묘지들을 지역적으로 보면 흑룡강성이 최대 밀집지역으로 38개 도시에 분포하고 있다.

1945년 8월에 이루어진 소련군의 전투와 여기에서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는 원래 원동 소련군이 작전을 개시한 소련 영내 지역에도 있다. 예를 들면 두만강 하구의 러시아 국경 소도시 크라스키노에는 1945년 8월 9일부터 9월 3일 사이에 이 지역에서 희생된 658명의 소련군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비가 있는데, 이 비의 위에는 왼손에 총을 든 소련군 병사 1명의 상이 있다. 이 기념비는 1938년 하산호전투에서 희생된 소련군 장교 크라스킨과 그 동료의 묘지 옆에 있다.⁸ 또한 이 묘지와 소련군 기념상에서 약간 떨어진 장소에 1945년 소련군기념비와 함께 희생된 병사들의 명단이 적힌 벽이 있다. 이 기념물은 1948년에 세워졌다고 한다. 이 소련군기념비는 방형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기념비들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중국 동북지방에서 소련군이 스스로 세운 기념비는 38개인데, 그 성격이나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 하얼빈, 창춘, 선양, 뤼순 구 등 4개 도시의 기념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이들 도시는 중국 동북지역 3개 성의 성도일 뿐만 아니라 다렌으로 남하하는 직선상에 있는 거점도시들이어서, 이들 도시에서 1945년 8월과 소련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⁸ 2014년에는 하산호전투 76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69주년을 기념하는 표지를 세웠다.

중요한 장치들이었다. 하얼빈의 기념비는 유명한 것이 두 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소련홍군열사기념탑이다. 이것은 1945년 8월 소련 원동 제1방면군이 건축하여 11월 7일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이 탑은 탑좌, 탑신, 탑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탑좌의 아랫부분에는 9개의 오각별과 윗부분에 소련국가 문양이 있고, 문양 아래의 남쪽 면에 탱크병, 서쪽 면에 보병과 항공병의 모습이 부조되어 있다. 정면에는 “소련군지휘부가 일본제국주의와 전투 중 사망한 홍군전사를 위하여 이 비를 세우며 위대한 10월혁명 28주년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한다. 1945년 11월 7일”이라고 쓰인 동패가 있다. 또한 탑좌 한쪽에는 흑룡강성 중소우호협회가 “중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동북해방전투 중 희생된 소련군 영웅들 영원하라. 1950년 9월 3일”이라는 글이 러시아어로 쓰여 있다. 탑신에는 흥기가 교차된 부조가 있고, 탑관에는 육군과 해군병사 두 명이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소련 국가 문양을 들고 서 있는 상이 서 있다.

하얼빈의 또 하나의 기념비는 소련홍군 동북해방기념탑인데, 이는 소련군 하얼빈 위수사령부가 1945년 10월 24일 시공하여 11월 23일 낙성한 것이다. 속칭 흥성탑이라고 부르는데, 탑신은 34m이고, 육군, 해군, 공군의 부조가 있고, 탑관에는 오각성이 있다. 이 탑 역시 “중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동북해방작전 중에 희생된 소련 영웅들을 기념하고, 아울러 10월혁명 28주년을 기념한다”고 쓰여 있다. 이 탑은 원래 하얼빈 역 광장에 있었는데 현재는 사라졌다.

만주국의 수도였던 창춘의 기념비는 1945년 11월 7일 세운 것으로 27.5m이며 속칭 비행기탑이다. 이 탑의 탑신 위에 1945년 8월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행기가 올려져 있다. 이 탑의 기단부에 1959년 9월 중국이 ‘중소우의 만고장청’이라는 문구를 새겨넣었다. 이 탑이 있는 장소는 만주국 시기에는 대동광장이었다가 소련군 점령 후 스탈린 광장으로 바뀌었고, 국민당 점령 이후 중정광장으로 바뀌었다가 중국 건국 이후 인민광장으로 바뀌었다.

창춘의 비행기탑과 대비되면서 동시에 쌍을 이루는 것이 선양의 기념비로, 속칭 탱크비다. 이것은 1945년 11월 6일 선양 역 광장에 세워진 것으로 높이는 30.14m이다. 탑신 위에 소련군 T34전차를 올려놓았다. 수효로 보면 소련군 기념비 중에서 탱크를 올려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선양의 기념비가 탱크비들의 원형적 모델이 된 것이다. 선양 역 재개발과 함께 이 탱크비는 2006년 중국 인

민지원군열사 묘에 인접해 있는 선양 소련군묘지로 옮겨졌다.

중국의 소련군기념비 중에서 티안지허 교수의 조사에서 누락된 기념비도 있다. 두만강 국경 연안의 소도시 개산툰에는 ‘동북광복기념탑’이 있는데, 이것은 ‘영모 소중조 순국의열사’라고 표기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소련, 중국, 조선 3국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이다. ‘해방’ 대신 ‘광복’이라는 용어와 ‘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화민국 35년’, 8월 15일이라는 건립 시기가 적혀 있다. 이 비는 아마도 중국에서 유일하게 ‘광복’이라는 용어와 중화민국 연호를 쓰고 있는 기념비로 생각된다. 이 탑의 건립 시점이 광복 1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어서 조선인 주도하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점은 내전이 본격화되는 시기이지만, 개산툰과 같은 시골에는 아직 그 여파가 미치지 않고 있었거나 촌락공동체에 기념비 건립과 운영을 위임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문화혁명 기간에 이 기념비가 헐리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하다.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

2. 소련군의 북한 점령과 해방탑

소련군이 점령했던 만주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소련군기념비들이 세워졌다. 북한으로 진주한 소련 해군은 8월 11일 용기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전투를 시작했는데, 8월 16일 청진을 점령하고, 8월 21일 함흥과 원산을 점령하였으며, 8월 26일 평양에 들어왔다.

만주에서와는 달리 북한에서 소련군기념비는 소련군이 직접 세우지 않았고, 시간적으로도 약간 늦게 세워졌다. 북한의 시인 김상오가 ‘1945년 해주’를 회상하면서 쓴 「언덕-나의 고향 언덕에는 해방탑이 서다」라는 시에 해방탑이 등장하는데, 이 탑이 정확하게 언제 세워졌는지 알 수 없다(김상오, 2000). 북한에 있는 소련군기념비의 대표적인 것은 평양의 해방탑이다. 1946년 8월, 평양 모란봉에 세워졌는데, 이 기념비의 꼭대기에는 붉은 오각형 별이 장식되어 있다. 탑신 상부에 해방탑이라는 이름을 새긴 글자가 붙어 있으며, 정면 중간에는 소련 국장이 있고, 그 아래의 현판에는 “위대한 쏘련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쳐부수고 조선인민을 해방하였다. 조선해방을 위하여 흘린 피로 조선인민과 쏘련인민의 친선

은 더욱 굳게 맺어졌나니 여기에 탑을 세워 전체 인민의 감사를 표하노라. 1945년 8월 15일”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이 해방탑의 후면에도 “일본군국주의 자들의 강점으로부터 조선인민을 해방하고 자유와 독립의 길을 열어준 위대한 쏘련군대에 영광이 있으라! 1945년 8월 15일”이라고 쓰여 있다.

해방탑의 하단에는 일제와 전투를 하는 소련군 모습을 그린 ‘전투’, 북한 근로자와 소련군이 어깨를 서로 잡고 감격하는 모습이 새겨진 ‘상봉’이라는 부조를 붙였다. ‘상봉’에는 당시 북한에서 사용되는 태극기 문양과 스탈린이 새겨졌다. 이 해방탑은 누가 설계했는지 밝혀져 있지 않은데, 아마도 북한의 토착권력인 인민위원회가 세운 듯하다. 1948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 기념행사가 이 해방탑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상징적이다.⁹ 이후 이 탑은 북한 지도자들이 참배하는 사진이 보여주듯이 북한 정권의 숭배 대상이 되었고,¹⁰ 1950년에는 북한 우표의 도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탑은 1952년에 찍은 사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한국전쟁에서 거의 파괴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이 탑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확립된 이후인 1985년 8월 ‘광복 40주년’을 앞두고 정비되었다. 오대형·하경호(1989: 271-281)는 “쏘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대일전쟁에 참가하여 조국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었다”고 쓰고, 1984년 9월 김정일의 지시로 이 탑과 주변을 정비하는 과정과 내용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이때 “탑신 형식과 비문을 그대로 두면서도 부각상 내용을 보다 풍부화”하고, “명예 위병대를 세울 수 있게 교양마당을 넓게” 만들었다. 또한 명예위병대가 분열행진을 할 수 있도록 마당을 25m×50m로 넓혔으며, 탑의 높이를 26.5m에서 30m로 높였다. 탑신을 18개의 통돌로 올려 쌓고, 탑 1층 양쪽에 5m의 날개식 기단을 만들었다. 북한은 이를 날개식 기단 형식과 뿔쪽탑 양식을 결합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⁹ 평양 해방탑의 모습은 1948년 2월 8일 인민군창건기념식을 기록한 영상자료에 담겨 있는데, 1959년 흐루쇼프의 방문을 앞두고 태극기를 담고 있는 부조를 없앴다고 한다. 여기에 스탈린의 초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흐루쇼프의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¹⁰ 평양의 해방탑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으로 한설야, “해방탑”, 『조선문학』 1953년 12월호와 홍순철, “해방탑을 우러러”, 『조선문학』 1955년 8월호, 문학예술출판사가 있다. 이 탑의 건축에 관하여는 “해방탑의 건축 형성에 대하여”, 『조선건축』 1990년 3월호, 공업출판사. p.73.

또한 해방탑의 조각으로 1층 하단 정면에 소련 깃발을 부각하고, 양쪽 측면에 각각 4m의 길이로 '전투'와 '상봉'을 다시 만들었는데, '전투'는 6명의 소련군 병사를 새기고, '상봉'에는 소련군과 북한의 노동자가 만나는 장면을 넣었다. '상봉'의 오른쪽에는 소련군 해병과 조선 청년 및 노인이 악수하는 장면을, 왼쪽에는 어린이를 추어올린 병사와 소련군 병사에게 꽃다발을 주는 북한 소녀상을 넣었다. 소련은 이 해방탑을 기념하는 우표를 1985년에 발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소련군기념비는 평양 이외의 지방 도시들에 건립되었다.¹¹ 신의주에 있는 해방기념탑은 한국 전통적인 다층탑 형식에 작은 원주들을 세워 붙여넣은 것으로, '1945. 8. 15'라는 날짜가 각인되어 있고, 탑 정면의 하단에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붉은 군대에게 드림'이라는 헌사를 새긴 동판을 붙였으며, 측면에도 유사한 동판을 붙였다. 이 탑은 평양의 해방탑과는 달리 전통적인 불교적 탑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소련군이 직접 건립한 것이 아님을 추정하게 한다. 이 신의주 해방기념탑 앞에서 젊은 남녀들이 러시아 10월혁명 40주년을 기념하는 모습을 담은 1957년의 사진이 남아 있다(Springer, 2009: 108). 원산의 기념비는 지구의 위에 세운 양식으로, 1954년에 촬영된 사진이 남아 있는데(Springer, 2009: 84), 최근에는 이와 다른 '쏘련군 추모탑'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¹² 청진 낙양동에 있다고 알려진 기념비는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다. 남포의 해방산에는 해방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매우 사실적으로 형상화된 소련군의 동상이 남아 있다.

소련군의 북한의 철수는 1948년 10월 19일부터 시작되어 12월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때 소련군의 무기·장비를 인민군에게 이양하여 인민군의 전투력은 급격히 증강되었다. 소련군은 인민군의 사단급에는 대좌급 군사고문관을 파견하고, 중대급까지 약 150명의 고문관을 운용했다. 소련군 철수에 즈음하여 기념비들이 세워졌는지 알 수 없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종전 직후에 미군과 소련군이 직접 만난 유일한 지역인 한국의 소련군 점령지역인 북한에는 소련군 묘지와 기념탑 등 유적 12곳이 있

¹¹ 연합뉴스(199.02.23)에 따르면, 소련군추모비는 평양 이외에 해주·신의주(평북)·청진(함북)·나진(함북)·함흥(함남) 등지에 세워졌다. 일본군과의 전투가 없었던 해수에 소련군추모비가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¹² <https://04varvara.wordpress.com/tag/north-korea/>, Voices from Russia, Too 2011. 5. 16.

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구하기 어렵다.¹³ 소련군은 당시 북한에서 1,500여 명이 사망했으며 “그들의 공동묘지가 청진과 원산, 함흥과 해주, 신의주에 있다”고 밝혔는데, 이 중 전사자는 691명이라고 한다.¹⁴

가장 규모가 큰 소련군 묘지는 평양의 사동에 있다. 평양의 해방탑과 사동 묘지는 가장 중요한 러시아인들의 참배장소다. 1998년에는 당시 북한 거주 “러시아인들이 ‘조국수호자의 날’을 기념해 이들 공동묘지와 기념탑에 헌화하고 50여 년 전의 역사적 사명을 상기했다”고 보도되었다.

1945년 8월, 소련군의 점령지역이면서 이후 소련의 영토로 편입된 곳이 남사할린이다. 소련군은 8월 9일 남사할린의 홀름스크(일본명 마오카)에 상륙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상당한 희생을 겪었다. 소련군기념비는 남사할린에도 세워졌다. 소련군은 홀름스크에 상륙기념비와 함께 탱크를 위에 올려놓은 기념비를 세웠다. 또한 레오니도보(일본명 가미시카)에도 열사기념비와 함께 탱크비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에는 “남사할린 해방을 위하여 순국한 영웅들에게 영광을”이라는 문장이 새겨졌다. 소련 영토가 된 남사할린에도 중국이나 북한처럼 ‘해방’이라는 용어가 적용되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3. 소련군의 다렌 철수와 기념비의 분화

소련군의 동북아시아 점령과 철수에서 예외적인 지역이 다렌이다. 이곳은 청일전쟁 직후 이루어진 이른바 3국간섭기부터 러시아의 집중적 관심지역이 되어 조차지가 되었고, 일본 또한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이곳을 식민지화하여 지배하였다. 1945년 8월 당시 이곳은 소련군의 최종 점령 목표가 되어, 자바이칼방면군의 근위 탱크 제6집단군이 진주했고, 곧이어 제39집단군이 진주하였다. 1945년 8월 14일, 스탈린은 장제스와 중소우호동맹조약을 맺고, 다렌 지역을 수십년간 조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진저우와 뤼순이 포함된다. 이런 사실은 19세기

¹³ 1998년 2월 26일 연합통신은,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소련군의 공동묘지를 5개 장소에 조성해놓고 있다고 러시아방송을 인용 보도했다.

¹⁴ <http://www.ruskiymir.ru/news/32756/>(검색일: 2015. 3. 20).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약 60년간 러시아 및 소련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중국의 어느 곳보다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련군은 1946년 5월 동북지방에서 철수하였지만, 이곳은 예외였다. 소련군이 다렌을 점령하고 있었던 10년간, 중국의 지배권력이 내전을 통해 바뀌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소련군들이 뤼순의 러시아 묘지에 비밀리에 묻혔다.¹⁵

이 때문에 뤼순과 진저우를 포함하는 다렌은 소련군기념비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된다. 뤼다 지구에 속한 3개의 구역에 각각 소련군 묘지와 기념비가 있는데, 다렌의 소련홍군열사묘원은 1946년부터 안장이 시작되어 1953년 정식으로 형성된 것으로, 1987년 다렌 시 정부가 전면 보수했다. 뤼순 구의 소련군 묘지는 중국의 영토 안에 있는 어떤 소련군 묘지보다 훨씬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크다. 이곳에는 1898년 제정 러시아의 조차 시기에 러시아정교 교회가 주관하는 러시아군 묘지가 처음으로 조성되었다. 이어 일본군은 러일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시체를 한데 모아 합장하여 러시아 병사 묘로 만들었고, 1907년 뤼순 전몰 러시아병사 묘비를 세웠다. 약 1만 6,000여 명이 매장되었고, 그중 1만 4,000여 명이 군인이었다. 이곳은 1945년 9월, 새로운 희생자들이 안장되기 시작하여 점차 소련군 공묘가 되었는데, 조성 시기와 신분에 따라 서로 다른 묘비들이 세워졌다.

1949년 9월, 중공 시위원회에서 해방탑을 뤼순 구 백옥산 아래의 문화광장에 세웠다. 11.9m의 높이에 오각별이 탑관에 있고, 탑신에는 낮과 망치가 새겨져 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노예하에서 뤼순을 해방시킨 소련군에게 감사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탑은 세로줄이 여러 개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꼭대기에 빨간 별이 있는 전형적인 해방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해방탑과 동일한 디자인의 묘비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소련군 묘비로 활용되었다.

신중국을 출범시킨 마오쩌둥(毛澤東)은 1949년 12월 6일, 저우언라이(周恩來)와 함께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과 중소 간 정치 및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관계에 관한 담판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50년 2월 14일, 새로운 ‘중소우호동맹호

¹⁵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공군과 대공포 포병, 보병, 그리고 레이더병의 묘지가 이 곳에 있다.

조약¹⁶, '중국 창춘철로, 뤼순 및 다렌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 따라 1945년 8월 14일에 체결한 조약과 협정은 효력을 잃는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으로 뤼순을 포함한 다렌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 협정에 따라 1952년 소련군 철수가 예정되었으나, 1950년 6월의 한국전쟁 발발, 1951년의 미일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안보조약에 따라 소련군 철군 시기가 늦추어졌다. 항미원조를 명분으로 한 중국의 참전이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공군이 1950년 10월 말부터 청천강 이북의 북한 상공에 출격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조종사의 수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중국이 발행한 공식 자료에는 20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후 중소 양국은 1954년 협의에 따라 소련군은 1955년 4월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5월에 완료하였다. 철수와 함께 소련군은 5월 24일, 뤼순 구의 열사능원에 소련홍군열사기념탑을 세웠다. 이 제막식에는 중국의 고위 인사와 소련군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 탑에는 1945라는 글자가 새겨졌으며, “소중양국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희생한 열사들 영수불후”라는 표현이 새겨져 있다. 탑은 12m이며, 탑신 하단부 4면에 이 문구와 탱크, 비행기, 대포, 함정 등이 새겨져 있다. 이 비의 양쪽으로 육군과 해군 병사가 무릎을 꿇고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상이 있다. 매년 2월 23일 소련홍군 건군절, 5월 9일 소련조국보위전쟁 승리기념일, 9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에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화환을 증정하고 참배한다. 이 묘지의 정문에는 개선문 형식의 문을 만들었다. 이 묘지에 안장된 병사들의 수는 자료에 따라 다른데, 1,945명에서 2,030명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묘지의 정면 전반부에는 소련홍군열사기념탑이 또 하나 있는데, 병사 한 명이 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이 병사는 가슴에 스탈린그라드전투, 베를린 함락작전, 일본과의 전쟁 승리를 나타내는 3개의 훈장을 달고 있어서 속칭 홍군탑으로 불리며, 다렌 홍기조선소에서 만들어졌다. 원래 이 기념탑은 다렌 시 스탈린광장(현재는 승리광장)에 1955년 5월 7일 제막된 것으로 높이는 30.8m다. 당시 소련군이 점령한 도시들에는 대부분 스탈린광장과 스탈린로가 개칭되거나 새롭

¹⁶ 두 조약의 차이에 관하여 栾景河·李福生(2004: 94-103) 참조.

게 만들어졌는데, 다렌의 스탈린광장은 1947년 11월 개칭된 것으로, 1994년 인민광장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이 기념탑 뒤에 1990년 기념실을 만들어 소련군의 행적을 전시하였다. 1999년 이 기념탑을 당시의 다렌 시장 보시라이는 뤼순의 소련군 능원 내로 옮기고, 더욱 큰 규모의 전시관도 함께 건축하였다.

얼핏 보면, 소련군이 다렌에서 철수하면서 세운 기념비들이 모두 중국과 소련의 협조 아래 순조롭게 건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소련은 1955년 1월, 뤼다 지구에서 철수하면서, 소련의 점령과 철수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자신들이 건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다렌에 소련군의 전승기념탑과 러일전쟁에서 사망한 태평양함대 사령관 기념비, 뤼순 소련군 묘지에 '진망장사 기념탑', 뤼순 동계관산 진지에 러시아 요새방어사령관 기념비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러일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 장군들의 기념비 건립에는 반대하고 추모비와 전승비 건립에는 동의하였다(秦九鳳, 2011: 43-44). 이 협상은 저우언라이가 주도한 것이다.

뤼순의 소련군 관련 기념비의 하나가 전승탑이다. 중국정부는 소련군 철수에 즈음하여 항일전쟁 승리 10주년 기념으로 뤼순 스탈린광장에 탑을 건립하여 1955년 9월 3일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 전승탑은 1945년 항일전의 승전을 상징하여 45m 높이로 건립되었는데 탑은 오각주형으로 정면에 금빛 총이 새겨져 있다.

뤼순에 있는 또 하나의 탑이 우의탑이다. 이것은 10년간 주둔한 소련군이 세계평화에 기여한 것에 감사하고, 철군을 환송하는 의미에서, 중국 국무원이 건립을 결정한 것이다. 구 관동군 사령부가 있던 광장에서 1955년 2월 23일, 소련군 건군 33주년 기념일에 터를 놓는 의례를 하고, 1957년 2월 14일, 중소우호호조동맹조약 체결 7주년 기념일에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이 우의탑은 22.2m 높이의 흰 대리석으로 원주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의 소수민족들과 소련군이 탑 상단부에 새겨져 있고, 하단부에는 소련군의 승리와 지원 모습을 새겼다.

이런 과정을 거쳐 뤼순은, 4가지 유형의 소련군기념비, 즉 해방탑과 추모탑, 전승탑, 그리고 우의탑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의 백옥산에 일본군이 세운 대형 백옥산탑(원래 이름은 표충탑)과 러일전쟁의 치열함을 보여주

는 203고지의 이령탑 등 수많은 기념비들을 가지고 있는 기념비적 도시가 되었다. 이 기념비들은 중국 근대사와 동아시아 냉전사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위상과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핵심적 지표다. 뤼순의 러시아 및 소련군 묘지와 기념비들은 1898년부터 1904년까지 제국주의 시기, 1945년부터 1955년까지 냉전 형성기, 그리고 탈냉전의 현재를 시간적으로 이어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맥락에서 동아시아 냉전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1945년부터 1955년까지 다룬에 주둔했던 소련군은 한편으로는 중국 동북지방과 북한을 아우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멀리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내다보고 있었다.

소련군기념비는 1945년 8월부터 소련군에 의해 세워지기 시작하였지만, 그 후 중국정부와 중국의 지방정부도 이를 세웠다. 1946년 봄 소련군이 중국에서 철수할 당시, 그리고 철수한 후, 중국정부, 지방정부, 지방기업 등이 출자하여 건립한 것이 20개다(田志和, 2010). 이들은 소련 항공병자원대의 작전과 전사한 병사를 기념하는 것, 뤼다 지구의 소련군 주둔 10년의 역사와 우의를 기념하는 것, 그리고 전투지역에서의 지방사를 기념하는 것으로 나뉜다. 소련군기념비가 서 있는 장소는 기차역 광장에 12개, 도심 광장에 8개, 공원 광장에 6개, 근교와 전투지역에 22개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소련군이 1945년 8월에 점령했던 동북아시아의 각 지역에는 공통적으로 소련군의 죽음을 추모하거나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점령을 해방으로 의미화하여 기억하는 기념비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10년간 주둔했던 뤼순에는 소련과 중국 간의 우의를 나타내는 기념비가 건립되어 1945년을 기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동북지역에는 소련군이 세운 기념비 외에 중국정부가 소련군을 위해 세운 기념비가 공존하고 있으며, 최초의 건립 장소를 뛰어넘어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발견된다. 기념비의 양식으로 보면, 소규모의 초창기 기념비들이 해방을 드러내면서 방형 모습을 하고 있다면, 1955년부터 1957년 기간에 세워진 뤼순의 기념비들은 러시아, 아니 유럽의 고전적 문양을 차용한 기념비들이다. 추모, 승전, 해방, 우의라는 네 가지 방식으로 분화된 기념비는 이후 중국의 기념비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1946년부터 1949년까지의 내전은 열사 기념비의 홍수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중국의 기념비들은 대체로 방주형이어서 형태적으로는 그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다.

IV. 소련군기념비의 영향 또는 지속성

1. 조종 우의비

전쟁과 관련하여 세워진 소련군기념비는 이후 중국과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전쟁관련 기념비가 다수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는 중국내전과 한국전쟁이었다. 이것은 각각 북한과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북한과 중국 간의 ‘우의’(Kwon Heonik, 2013) 또한 중국과 소련의 ‘우의’를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에서는 항일무장투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기념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한국전쟁 종료와 중국 인민지원군의 철수는 중국에서의 소련군 철수처럼 기념탑 건립의 유력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1958년 중국 인민지원군이 북한에서 철수를 완료한 후 우의비가 1959년 모란봉에 건립되었다. 이 탑의 건립과정에 관한 류슈핑(刘秀峰)의 회고가 『세계를 진감한 천일(震撼世界一千天)』(2003)이라는 항미원조참가자 회상기모음집에 실려 있다. 1951년 봄에 12군 35사 105연대 직공 고장(直工股長)으로서 항미원조에 참가한 류슈핑은 1953년 초에 지원군 정치부 산하의 조직부로 전근되어 조리원이 되었으며, 1957년 귀국할 때까지 4년 남짓 부상자 무휼사업과 열사안장사업에 참여했다.

그에 따르면, 이 우의비는 최초에는 나름대로의 상징성이 있는 지방도시인 신의주, 원산, 개성 등에 만들 계획이었고 설계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¹⁷ 북한의 국토 규모와 인구 등을 고려하여 평양에 하나만 건립하기로 조정되었다. 평양의 우의비는 북한정부가 건립하고, 중국 인민지원군은 회창의 지원군 묘지 건설을 담당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류슈핑의 회고를 『자주민보』(2012/10/30)가 자세히

17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안동 시와 마주보는 도시로 지원군의 참전을 상징하고, 원산은 동부전선 반격전이 이뤄진 싸움터에 가깝다는 의미를 지니며, 개성은 38분계선에 있으므로 중국인민들이 세계평화보위결심을 체현한다는 것이었다.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의탑을 설계하는 데 있어 소련군 기념탑의 영향이 컸으며, 저우언라이가 우의비를 축소 건립한다고 결정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포함되어 있다.

류슈핑의 글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국토와 인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념탑들로 자기 자량을 하려 한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으려고 3개 기념탑 방안을 부결한 데서는 저우언라이 총리의 냄새가 짙다. 물론 대국주의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는 것은 마오쩌둥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의 공통된 특징이다.

또한 김일성 수상이 철과 시멘트 1그램도 아껴야 했던 전후복구건설시기에 기념탑 건설을 중국에 맡기지 않고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세우겠다고 한 데는 민족자부심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보인다. 말하자면 소유권이 분명히 조선에 있다고 확정하는 것이다. 사실 또 그래야만 관리와 보수 등 많은 문제도 쉬이 풀린다. 그리고 “우의탑”이라고 이름지음으로써 단순한 지원군 기념 성격을 초월하여 조종 두 나라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도 기리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1959년 10월 25일에 건립된 우의탑은 1984년 10월 25일에 개축되었는데 탑부분이 참전기념일을 기념하여 1,025개의 화강석과 대리석으로 이뤄졌다는 등 상징적 의미가 짙다. 그리고 평양의 모란봉 북쪽 기슭에 세워진 우의탑의 높이는 모란봉 남쪽 기슭에 세워진 해방탑과 마찬가지로 30미터나 이런 세부야말로 국제정치는 평형의 예술임을 증명해준다(『자주민보』 2012/10/30).

이 기사를 보면, 우의탑 건립에 관하여 중국측은 저우언라이의 배려를, 북한측은 김일성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조 우의탑의 높이가 30m로, 소련군을 기념하는 해방탑과 동일하며, 이를 통해 북한은 이 시기부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해석이 눈길을 끈다.

오대형·하경호(1989: 256-270)에 따르면, 우의탑은 1983년 5월 김정일의 방침에 따라 1984년 10월에 개건 확장되었다. 우의탑 앞에 위병대를 세우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전기념일을 상징하는 1,025개의 화강석과 대리석으로 증축하여 30m에 달하는 이 우의탑은 외부 1층에 좌우의 부각상과 정면의 사적비문을 가지고 있다. 왼쪽의 부각상은 ‘전투’, 오른쪽은 ‘전후복구건설’을 주제로 하는데, 전자는 13인의 조종 병사와 7인의 북한주민을 새겼다. 후자는 15일 군상으로 중심에는 북한 여성이 중국군 병사에게 축기를 전해주는 모습이 새겨 있

다. 흥미로운 것은 우의탑의 내부에 벽화들을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3부작으로 이루어진 내부 벽화는 참전, 승리, 전후복구건설 지원을 주제로 한다.

대규모 기념비는 이처럼 종종 내부에 전시공간을 만들어 기념비를 떠받치는 이념을 드러낸다. 이런 방식은 1993년에 만들어진 단둥 향미원조기념비, 그리고 2012년에 개축된 뤼순의 소련군기념비에도 적용되었다. 평양의 우의탑은 향미원조기념비와 비교해 볼 때, 탑관의 모양이 다를 뿐 나머지는 유사하다. 이 우의탑은 사회주의 우호주의의 맥락에서 뤼순의 중소우의탑의 후속이면서도 탑의 형태와 문양은 이와 대조되는 방주형을 채택했다. 이로부터 34년 후인 1993년 단둥에 세운 중국의 향미원조기념비는 의미상으로는 승전탑 계열이나 형태상으로는 평양의 우의탑 계열에 속한다.

북한 기념비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1974년에 세워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이다. 이것은 1954년 건립된 조국해방전쟁전시관에 이념적 수정을 하여 ‘승리’사관을 덧붙인 것으로, 북한의 공식적인 전쟁사관이 되었다. 이 기념탑은 1946년의 해방탑, 1959년의 중조 우의탑을 거쳐 형성된 북한 기념비문화의 진화와 변이의 과정을 보여주며, 주체탑과 함께 독자적인 역사관을 표현한 것이다.

2. 일본군과의 전쟁기억의 냉전적 소환

1960년대에 세계적으로 전개된 냉전에서 소련은 1945년 전쟁의 기억을 포함하여 이 이전에 발생했던 작은 전투들에 대한 기억을 소환했다. 브레즈네프는 1965년 전승기념일에 소련군 열병식을 재개하였고, 볼고그라드로 이름이 환원된 스탈린그라드에는 ‘조국이 부른다’는 85m 높이의 대규모 기념상을 1967년에 건립했다. 볼고그라드는 소련 최대의 기념비의 도시가 되었다.

이런 브레즈네프의 문화정치는 동북아시아에도 적용되었다. 연해주 크라스키노에 1938년의 하산호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1968년에 세워졌다. 동북아시아 근대사에서 소련군의 존재는 1937년 중국의 항일전투를 지원한 공군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중국의 동북지역은 중일전쟁 발발 직전인 1937년 6월 30일, 아무르 강의 건차자도(乾岔子島)에서 일본 관동군과의 충돌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여, 중일전쟁 발발 1주년이 되던 1938년 7월 두만강에서 불과 1km쯤 떨어진 장고봉(張鼓峰)에서의 전투에서 그 모습을 뚜렷이 드러냈다.¹⁸ 이 사건에서 소련군과 충돌한 일본군은 나남에 주둔했던 조선군 제19사단이었다. 이 전투는 러일전쟁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단급 대규모 전투여서 쌍방은 각각 2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였고 사상자도 각각 수백 명에 달했다. 소련은 이 전투를 하산호 전투라고 부르는데, 이 전투의 희생자, 크라스킨 중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전투가 일어난 장고봉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연추)을 그의 이름을 따서 크라스키노로 명명하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였다. 이 시기는 소련이 연해주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킨 직후였다. 원래 이 기념비는 크라스킨 중위를 모델로 하여 레닌그라드(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작한 것으로, 사건 1주년 기념으로 세우려고 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방치되었다가 뒤늦게 1968년에 세우게 되었다. 기념비의 장소 또한 원래의 전장이었던 장고봉(하산호)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발생한 중소국경분쟁으로 인하여 국경과 거리를 둔 크라스키노의 산으로 옮겼다. 근래에 연해주 남부지역에서는 하산호 전투 기념일을 제정하여 이 사건을 기억하고 변경의 지역적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산호 전투 후, 1939년 5월부터 8월까지 소련군과 일본군은 만주국과 몽골의 국경이던 할хин골(또는 할호골)에서 다시 충돌했다.¹⁹ 당시 일본은 이를 노몬한 사건으로 불렀다. 사건의 경위나 결과에 관하여 소련이나 일본은 매우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만(Goldman, 2012), 이 전투는 본격적인 전차전이었으며, 소련군은 최소 6,000여 명에서 최대 1.7만 명, 일본군은 최소 1.7만 명에서 최대 5만여 명이 전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전투에서 소련의 전쟁영웅 주코프 원수가 부각되었다. 이 전투를 통해 일본군은 자신들과 충돌한 소련군이 자신들이 과거에 패퇴시킨 제정 러시아군과 전혀 다른 존재임을 깨달았다. 소련군도 유럽에서의 급박한 상황 때문에 일본군과의 더 이상의 충돌을 두려워했다. 이 때문에 소련

¹⁸ 소련군은 이를 하산(Khasan) 호수 근처에서 발생한 전투라 하여 장고봉 전투를 하산호 전투라고 부른다.

¹⁹ 할хин골 전투(몽골어: Халхын голын байлдаан, 러시아어: бой на реке Халхин-Гол, 일본어: ノモンハン事件 노몬한 지켄*, 영어: Battles of Khalkhin Gol.

은 1940년 8월부터 일본과의 협상을 시작하여, 1941년 4월의 중립조약으로 이어졌다.²⁰

이 할힌골 전투가 끝난 10여 년 후에 이를 기념하는 기념물들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자이승 언덕과 지방도시 초이발산에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몽골은 1954년 울란바토르 남쪽 톨 강 옆 언덕에 러시아 군인들의 기념비를 세웠다. 이 기념비는 1921년 몽골의 독립을 위해 싸운 군인들, 1939년 일본침략에 대하여 싸운 군인들, 1945년 만주지역에서 일본군에 대한 승리를 거둔 군인들을 위해 세운 것이다. 몽골정부는 이 기념비가 있는 광장에 베를린에서 가져온 실물 탱크를 위에 올린 기념비를 1968년에 설치하였고, 1971년 소련의 지원으로 자이승 언덕에 대규모 군인 기념비와 원형 벽화를 세웠다. 이 원형 벽화에는 소몽연합군의 독일군과 일본군에 대한 승리, 그리고 몽골과 소련군의 우호를 상징하는 벽화를 포함하는데, 이 우의는 몽골 여성이 소련군에게 감사하는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할힌골 승전기념비와 승전기념관은 초이발산에도 있다. 초이발산은 몽골의 사회주의 영웅 초이발산의 이름을 딴 작은 국경도시로, 여기에 그의 동상과 함께 기념관을 세웠다. 이 기념관에도 소련 탱크가 기념물로 전시되어 있다. 이는 1945년 당시의 군사적 근대성의 상징으로 채택된 무기가 냉전시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일전쟁 시기에 발생한 세 차례의 소련군과 일본군의 충돌은 사건 발생 직후에는 기념비로 나타나지 않았다. 모두 1954년부터 1971년까지 시차를 두고 건립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동아시아 냉전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전후 소련이나 몽골, 또는 중국의 필요에 의해 뒤늦게 소환된 것으로 일본과의 적대를 핵심주제로 공유한다. 이들은 소련군의 참전과 점령 기념물이 사건 바로 직후에 건립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²⁰ 상호불가침을 내용으로 하는 이 협정은 1945년 8월 소련군의 대일 선전포고에 의해 깨졌는데, 일소전쟁 4년간의 유예가 가진 의미는 새롭게 질문되어야 한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1945년'과는 다른 길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탈냉전과 ‘해방’의 재해석

중국 동북지방의 소련군기념비를 논의할 때 자주 언급된 것은 두만강 국경도시 도문의 기념비, 일명 ‘백탑’이다. 이 비는 1945년 8월 17일 도문성 전투에서 희생된 소련군 20명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1945년 9월에 정초식을 하고, 소련 10월혁명기념일인 11월 7일에 건립하였는데, 하얀 비신 위에 빨간 오각형 별을 세웠으며, 15m 높다. 이 기념비는 원래 ‘동북해방기념탑’이었고, 1981년 5월, 연변 자치주의 ‘문화유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이 기념비의 명칭 변화가 흥미롭다. 이에 관한 중국의 한 잡지의 소개를 살펴보자.

도문사람들이 ‘백탑’으로 일컫는 ‘쏘련홍군렬사기념비’의 원래의 명칭은 ‘동북해방기념탑’이었는데, 1993년 도문시 지방지 편찬관공실의 란해주임이 주 문물관리 부문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름을 광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란해주임은 심양, 대련, 장춘 ... 등지의 지방편찬관공실에 공문을 보내 홍군렬사기념비의 규모, 명칭, 비문 등을 세세히 요해하고 ‘동북해방기념탑’을 개명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첫째는 ‘8·15’ 광복은 동북해방을 의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동북의 진정한 해방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한 인민해방군(동북인민자치군→동북민주련군→동북야전군→제4야전군)이 발동한 세계를 진감한 ‘요심전역’의 승리적 결실이 동북해방으로 직행하고 동북에서의 국민당 축출이 진정한 동북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이유는 객관상에서 중화민족의 8년 항전과 그 업적을 희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문화세계』, 2008/7/28).

이 기사는 중국 동북지방의 소련군기념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념비는 소련군의 점령 직후에 만들어졌고, ‘해방’을 기념했으며, 비의 형태는 대체로 점령의 주력군을 고려하여 이를 상징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1993년에 ‘해방’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해방’ 대신 ‘열사 추모비’로 재명명하게 되었다. 이런 재해석은 단지 도문기념비뿐만 아니라 동북지역의 해방탑 대부분에 적용되었다.

이 기념비는 2006년에 이르러 도시개발로 이전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

나 많은 반대에 부딪쳐(오기환, 2006),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 기념탑이 러시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커졌으며, 도문시 정협은 이를 ‘중소우의탑’으로 개칭했다(田志和, 2010: 58). 실제로 도문은 기존의 국경관광객에 더하여 인근의 훈춘을 중심으로 중러 국경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러시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도시가 되었다(『길림신문』, 2012/08/14).

탈냉전과 함께 소련군기념비에 붙여진 ‘해방’의 의미가 약화되거나 탈락하는 현상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발견되는가? 나는 정도는 약하지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양의 해방탑은 해방 40주년 준비를 위해 1984년에 재정비된 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00년 7월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김정일과 함께 참배한 곳이다. 해방탑은 2009년 다시 재정비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조소 우의탑’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나 평양을 방문하는 러시아 인사들이 이곳을 찾아 참배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우의를 표현하였다.

신의주 해방탑의 경우, 1957년에 촬영된 사진과 2008년 무렵 케른바이저가 찍어 인터넷에 올린 사진²¹을 비교해보면, 기념비의 정면과 측면 하단의 소련군에 대한 헌사가 쓰인 동판이 “소련군 련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는 문장이 새겨진 작은 동판으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포의 해방산 해방공원에 있는 소련군 동상의 경우, 2006년 5월,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동상 하단의 현판을 새롭게 붙였는데, 여기에는 “조선해방을 위하여 전사한 소련군 병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는 문장이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쓰여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현판은 기존의 현판보다 절반 정도의 크기였다. 북한에서는 2003년 또는 2006년 무렵부터 지명이나 가로명에서 ‘해방’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이 소련군 동상 인근에 있는 해방소학교가 용수소학교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가 악화된 2009~2010년 사이에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소련군기념비들이 단장되고 이것이 북러관계의 증진에 활용되었다.

탈냉전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련군기념비의 운명에 관하여 언급해야 할 것

²¹ <http://www.flickr.com/photos/kernbeisser>(검색일: 2015. 4. 4).

이 동유럽과 동북아시아의 차이이다. 탈냉전 시기에 동유럽의 소련군기념비들은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²² 소련 해체 후 1994년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소련군기념비 철거 논쟁이 시작되었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있는 기념비도 논쟁거리가 되었다(AP통신, 2007/03/27).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을 겪던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는 시내에 있던 소련군기념비가 2007년 4월 철거되어 교외의 묘지로 옮겨졌는데, 이곳에 살던 러시아인들이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河原祐馬, 2011).²³ 러시아 정부는 이에 자극을 받아 소련군기념비가 있는 14개국의 정부에 대하여 소련군 묘지와 기념비를 잘 보존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런 러시아의 요청이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서 소련군기념비는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서방언론은 이를 즐겨 보도했다. 1954년 건립되었던 불가리아의 소피아에 있는 소련군기념비의 군상들은 2011년 6월, 미국식 만화 주인공으로 칠해졌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있자 우크라이나 국기 문양의 색깔로 칠해지는 등, 조롱과 저항(vandalism)에 시달렸다.

동북아시아의 소련군기념비가 겪었던 상황은 이와 다르다. 1960년대 중소분쟁이나 문화혁명 시기에 소련군기념비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종종 소련군기념비는 도시화로 인해 철거되거나 특정 장소로 이전되었다. 하얼빈의 소련군기념비는 철거되었고, 다롄이나 선양의 소련군기념비는 인근의 묘지로 이전되었다. 오히려 흥미로운 점은 초기의 해방탑들이 겪은 변화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문의 백탑은 ‘해방’으로부터 ‘추모’를 거쳐 ‘우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동유럽과는 달리 철거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재생하거나 정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뤼순의 소련군 묘지는 1999년 중국정부가 보수하고, 2006년 다시 보수하였으며, 흑룡강성 정부는 2002년 이래 하얼빈과 치치하얼, 쑤이펀허(綏芬河) 등 10여 개 도시에 있는 소련군 묘지를 집중적으로 보수했다(조계창, 『연합뉴스』, 2007/05/11).

²² 두 지역의 차이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러시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차이가 서방 언론에 의해 부풀려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²³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에서 소련군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다. 히틀러의 소련 침략 이전에 소련은 이들 지역에 대한 이익을 독일과 공유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흑룡강성에서는 소련군기념비를 최근에 다시 세우지기도 한다. 2002년 11월 흑룡강성 안달시가 소련홍군열사기념비를 세웠고, 2009년 10월에는 흑룡강성 쉰이푼허 시가 ‘우의화평천사비’를 세웠다. 물론 새롭게 세워지는 기념비는 1945년의 기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러시아 접경지대라는 점을 활용한 관광 객 유치용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런 기념비가 세워진다는 것이 흥미롭다.

2007년 탈린사건은 중러 간 협의를 가져왔다. 중국정부가 소련군 묘지와 기념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옛 소련군 기념물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2010년 9월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뤼순의 소련군 묘지를 방문하였다(『한국일보』, 2010/09/27). 그의 방문에서 일본의 전쟁기억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대응이 하나의 의제였는데, 아마도 이때 이 묘지를 좀더 정비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방문 후인 2012년 5월 13일, 이곳은 중국의 영내에 있는 소련군의 최대 규모이자 가장 잘 다듬어진 묘지로 개방되었고, 러시아 외무장관 라블로프 등이 참석한 성대한 개관식을 가졌다(『다롄일보』, 2012/05/14).²⁴ 특히 오랫동안 비밀로 간주되어온,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소련 공군 묘지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알려졌다.²⁵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하여 역사적 전환기에 사라지는 과거와 함께, ‘어떤 과거가 현재에 살아남으며’(Levinson, 1998), 더 나아가 재생산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확실히 살아남거나 재생산되는 과거는 정치적 요인뿐 아니라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탈냉전기에는 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²⁴ 러시아 외무부장 세르게이 웨이크토로비치 라블로프, 중국 외교부 부부장 청귀핑, 러시아 주중국 대사 세르게이 세르게이아비치 라조프, 시장 리완차이, 시위상위 겸 부시장 차오아이화, 시정부 비서총장 뤼동성이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²⁵ 이 능원에는 소련군기념관이 새롭게 개관했는데, 이 기념관은 5개의 전시홀로 구성되었다.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의 서광’, ‘소련홍군의 동북출병’, ‘우호협력의 역사기억’, ‘소련홍군이 뤼순과 다롄을 떠나다’, ‘영원한 그리움’ 등의 주제로 사진과 설명문이 전시되었다. 이곳을 새로운 중국과 러시아의 우의를 다지는 상징적 장소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45년 8월 소련군이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에 진주한 이후 이를 기념하는 소련군기념비들이 주요 도시에 건립되었고, 이들에 대하여 ‘해방’ 또는 ‘추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념하는 문화가 광범하게 형성되었다. 1955년 다렌에서의 소련군 철수는 추모와 승전에 우의를 더하는, 기념비의 분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런 기념비의 문화가 단순히 소련 기념비문화의 이식인가, 아니면 현지의 기념비문화와의 융합인가라는 쟁점이 있지만, 전쟁 후 기념비를 세우는 문화는 혁명 또는 내전을 겪은 중국이나 전쟁을 겪은 북한에서 확산되었다.

초기의 소련군기념비들은 전쟁에서 희생된 병사들에 대한 추도와 이들이 성취한 군사적 근대성에 대한 찬양이 결합되는 방식을 취했다면, 1955년부터 1957년 시기에 뤼순에 세워진 기념비들은 군사적 근대성보다는 서구의 문화적 고전에 가까운 양식을 취했다. 이 기념비들은 서구적인 원주형이나 방주형, 동아시아적인 탑형이나 비형으로 구분되는데, 중국과 북한에서 세운 기념비는 비형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동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군기념비의 운명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1960~70년대의 냉전기에는 중소분쟁이나 북한의 주체노선에 따라 중국과 북한의 소련군기념비들이 방치된 반면, 동유럽에서는 강력한 사회주의적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하였다. 냉전하에서 소련은 전쟁기억을 활용한 문화정치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소련군기념비는 점차 서로 다른 운명에 놓이기 시작했다. 소련군기념비는 반러시아주의를 표현하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북아시아에서는 국제적 우호와 상호협력력을 확인하는 역사적 기억의 터로 재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차이는 확실히 냉전연구에서의 지역별 비교연구를 고무시킨다. 냉전과 탈식민 국가 형성의 중첩적 전개과정²⁶에서 소련군 기념비문화에 대한 탐구는

²⁶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전개된 중국내전과 현대 중국의 성립, 북한에서의 탈식민 국가 형성에

비교연구의 작은 실마리다. ‘1945년의 소련군의 전승’이라는 의제는 냉전기뿐 아니라 탈냉전기에도 러시아 애국주의와 결합하여 여전히 중시되고, 자주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지평으로 소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이종훈, 2010). 러시아나 중국의 전승기념일은 여전히 동북아시아의 문화정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냉전과 연관된 기념비에 관한 연구는 그것의 출발점이 된 미군과 소련군의 동아시아 분할 점령,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공고화의 계기였던 한국전쟁에서 양 진영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여기에 개입한 미군이나 중국군 또는 소련군의 역할 등을 재평가하고, 나아가 탈식민 국가 형성 과정을 주도한 정치세력의 세계관과 이를 내면화해야 했던 민중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냉전의 어느 한 진영에 머무르지 않고, 두 진영을 모두 시야에 넣고 비교연구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모스크바의 아카이브에 소장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진전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기념비문화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역사적 시간의 질서와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기념의 질서’에 대한 이론화는 여전히 도전해볼 만한 매력적인 주제다.

투고일: 2015년 6월 18일 | 심사일: 2015년 7월 12일 |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22일

참고문헌

- 기광서. 2006. “8·15 해방에서의 소련군 참전 요인과 북한의 인식.” 『북한연구학회보』 9(1), 1-22.
- 기시 도시히코·쓰치야 유카 공편. 김려실 역. 2012. 『문화냉전과 아시아: 냉전 연구를 탈중심화하기』, 서울: 소명출판.

서의 소련군의 존재는 쉽게 비판할 수도 없고, 쉽게 자기동일시할 수도 없는 복잡한 것이었다.

- 김국후. 2008. 『평양의 소련군정』. 서울: 한울.
- 김덕중. 2006. 『소련군의 한국전 참전』. 수원: 경기대학교출판부.
- 김상오. 2000. “언덕-나의 고향.” 『실천문학』 60, 179-193.
- 리글(Riegl A.) 저. 최병하 역. 2013. 『기념물의 현대적 숭배』. 서울: 기문당.
- 박상철. 2005. “페레스트로이카와 스탈린문제: ‘메모리얼’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15(2), 129-160.
- 오기환. 2006. “기념탑, 옮겨야만 하는가.” 『길림신문』(11월 29일).
- 오대형 · 하경호. 1989. 『당의 령도 밑에 창작 건립된 대기념비들의 사상예술성』. 평양: 조선미술출판사.
- 육군본부 편. 1975. 『소련군사, 1917~1966』. 서울: 육군본부.
- 이재훈. 1997. 『소련군사정책: 1917~1991』.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 이종훈. 2010. “승전의 공식기억만들기: 통합과 균열사이에서.” 『역사와 문화』 20, 57-80.
- 이지연. 2008. “기념비와 스탈린 신화: 권력의 재현적 공간으로서의 소비에트 예술과 삶.” 『러시아문학연구논집』 29, 343-375.
- 인민넷. 2010. “1945년 - 장춘상공에서 ‘록색 폭격기’가 날다.” 2010. 4. 9(검색일: 2015. 4. 1).
- 전현수. 1995.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343-377.
- 정근식. 2014. “동아시아의 냉전 · 분단체제의 형성과 해체: 지구적 냉전하의 동아시아를 새롭게 상상하기.” 임형택 편, 『한국학의 학술사적 전망 2』, 41-76. 서울: 소명출판.
- _____. 2015. “소련의 2차 세계대전 기념비와 기억의 정치: ‘해방’에서 ‘우의’로.” 『내일을 여는 역사』 59, 129-144, 서울: 선인.
- 정근식 · 신주백 편. 2006. 『8·15의 기억과 동아시아적 지평』. 서울: 선인.
- 존 쇼 저.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편집부 역. 1992. 『소련군의 반격』. 서울: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 栾景河 · 李福生. 2004. “中苏友好同盟条约与中苏友好同盟互助条约之比较.” 『当代中国史研究』 第11卷 第2期, 94-103.
- 李嘉谷. 1998. “关于1941年苏日签订中立条约谈判的新揭秘档案.” 『世界历史』 第5期, 83-98.
- 马维颐 · 胡凤斌. 1995. “苏联红军出兵东北的战略特点及意义.” 『北方文物』(03), 6-11.
- 安峰熠. 2002. “朝中友谊塔.” 『东疆学刊』 第19卷 第4期, 38.
- 杨静水. 2007. “苏联红军公墓在国外.” 『环球军事』(15), 19-21.

- 杨昌. 2005. “苏联红军出兵东北内幕揭秘.” 『世紀橋』(09), 64-67.
- 劉秀峰. 2003. “籌建 志願軍烈士陵園始末.” 林源森 等 主編. 『震撼世界一千年: 志願軍壯士朝鮮戰場實錄』, 798-801.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중국시민, “평양에 있는 우의탑의 내력.” 『자주민보』, 2012년 <http://m.jajuminbo.net/>, 검색일: 2015. 3. 15).
- 张仲. 2012. “重庆苏军烈士纪念碑前苏联援华的见证.” 『重庆与世界』(01), 78-79.
- 张天怡·朱琳. 2013. “苏联的三座卫国战争纪念碑.” 『公共艺术』第04期, 86-93.
- 田志和. 2009. 『碑陵的震撼』. 吉林: 吉林人民出版社.
- 田志和 編. 2010. 『永恒的悔念: 中國土地上的蘇聯紅軍碑塔陵園』. 大連: 大連出版社.
- 秦九鳳. 2011. “周恩來堅決不同意蘇聯在旅順建日俄戰爭紀念碑.” 『黨史博覽』第3期, 43-44.
- 蔡宝珠·周国土. 2008. “苏联红军出兵东北与座落在黑龙江省的苏军纪念碑.” 『世紀橋』(17), 41-45.
- 许明纲. 1991. “旅顺中苏友谊塔.” 『辽宁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1期, 64.
- 石井 明. 2012. “書評: 鄭成. 『国共内戦期の中共・ソ連關係—旅順・大連地区を中心に』.” 『アジア研究』58(1・2), 107-110.
- _____. 1990. 『中ソ關係史の研究: 1945~1950』.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鄭成. 2012. 『国共内戦期の中共・ソ連關係—旅順・大連地区を中心に』, 東京: 御茶の水書房.
- 平井友義. 1987. “ソ連の初期対日占領構想.” 『国際政治』第85号, 7-24. 日本国際政治学会.
- 河原祐馬. 2011. “エストニアにおけるロシア語系住民の社会統合: 「戦争記念碑」問題を中心として—.” 『社会科学論集』49, 61-85.
- Clark, K. 2003. “Socialist Realism and the Sacralizing of Space.” In E. Dobrenko and Eric Naiman, eds., *The Landscape of Stalinism: The Art and Ideology of Soviet Space*, 3-18, Seattle &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Clark, K. and E. Dobrenko. 2007. *Soviet Culture and Power: A History in Documents, 1917-1953*,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Goldman, S.D. 2012. *Nomonhan, 1939: The Red Army's Victory that Shaped World War II*.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 Joinau, B. 2014. ““Regimes of Visibility” of Pyongyang - Capital, Spectacularity and Topo-politics of Distance.” *Sungkyun Journal of Asian Studies* 14-1, 65-92.

- Jung, Keun-Sik. 2015. "China's Memory and Commemoration of the Korean War in the Memorial Hall of the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4(1), 14-39.
- Kwon, Heonik. 2013. "The Korean War and Sino-North Korean Friendship." *The Asia-Pacific Journal* 11 (Issue 32, No. 4).
- Levinson, S. 1998. *Written in Stone: Public Monuments in Changing Societi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Lowe, D. and T. Joel. 2013. *Remembering the Cold War: Global Contest and National Sto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pringer, C. 2009. *North Korea Caught in Time: Images of War and Reconstruction*. Boulder: Garnet Pub.
- Verheyen, D. 2010. *United City, Divided Memories?: Cold War Legacies in Contemporary Berlin*. Lanham: Lexington Books.
- Westad, O.R. 2007.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mpolsky, M. 1995. "In the Shadow of Monument." In Condee N. ed., *Soviet Hieroglyphics: Visual Culture in Late Twentieth-Century Russia*, 93-112.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Zhurzhenko, T. 2007. "The Geopolitics of Memory." *Eurozine* 2007. 5. 10 (http://www.eurozine.com/2007-05-10_zhurzhenko-en.html).

Abstract

Cold War and Soviet Army Monuments in China and North Korea

Keunsik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so many soviet army monuments in Northeastern China and North Korea. Most of them has been constructed during 1945 and 1957. This paper examines, first, the historical and commemorative times and the change of significance of them, second, the effects and influences of soviet monument culture on Chinese and North Korean memorial culture in the context of East Asian Cold War studies.

The early soviet army monuments were ascribed the meaning of liberation and mourning, but, the later monuments were distinguished by the victory and friendship around the pullout of the soviet army from Dalian. The monument culture of soviet army gave a model of commemoration culture in two countries including the victory and friendship tower. The emergent conflict between the USSR and the PRC as well as North Korea's Juche doctrine, both emasculated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monuments in Northeastern Asia, but the end of the Cold War has been those revitalized as the site of the collective memory of cooperation and friendship, unlike their counterparts in Eastern Europe.

Keywords | Soviet Army monument, liberation, mourning, friendship tower, Cold War culture